



2020 고양 인권작품공모전 수상작 돋보기

지난 9월호에 이어 '2020 고양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스토리 부문 수상작을 소개해보려 한다.

글·사진 평화미래정책관

수상 내역(스토리 부문)

일반	우수상	정상과 비정상, 그 경계에서	정수지
		결혼하셨어요	이서연
장려상		비난	문천정(팀)
		존중해	최시은
		주문하시겠어요	박미강
		내 친구는 착한 참견쟁이	김혜정
		새로운 시작	김정임
아동·청소년	최우수상	마주보고 이해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이윤지
		No키즈존은 왜 있을까?	한승아
	우수상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	김수연
		반성문	장서안
		직면	서채린
장려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동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신다원, 신유환	

[일반부문 우수작, 정수지]

정상과 비정상, 그 경계에서

여섯 살 무렵, '애자'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다. 그날 언니는 초등학교에서 조퇴하고 집에 울며 들어왔다. 언니는 엄마 품에 안기며 '애자'가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다. 학급 친구들이 애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애자니까 지우개를 먹어보라고 한다고, 숨이 넘어갈 듯 우는 언니를 안고 엄마도 한참을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었다. 유치원생이던 나에게 학교는 차갑고 무서운 곳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비단 학교뿐 아니라 집 밖의 세상 또한 그러하였다. 그저 일상적인 외출에서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공원을 걸어가 할 때도, 외식을 할 때도 사람들은 언니를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보았고 간혹 쫓겨다니며 지나가는 어른들도 있었다. 그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언니는 마치 동물원의 동물처럼 구경거리가 되었다.

당시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존중이 부재하였다. 언니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적응시키고자 엄마는 언니의 사회생활 훈련에 함께하였다. 비장애인에겐 너무나 간단한 대중교통 이용, 엘리베이터 이용, 음식 주문 등을 하기 위해 언니는 수천 번을 노력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니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이고 합법적인 무료승차를 하여도 화를 내는 버스 기사와 언니 때문에 주문이 밀린다며 짜증을 내는 종업원을 만나기 일쑤였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다른 누군가는 수많은 실수와 반복으로 이뤄낸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마 몰랐을 것이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매일 아침 실랑이를 벌이던 언니가 처음 학교가 재미있다고 한 것은 언니가 다니던 일반중학교에 장애학생 통합교육이 시행된 이후였다. 당시 고양시에서는 한 곳의 특수학교만 있었을 뿐, 특수학급이 있는 중학교는 부재하였다. 다행히도 마침 장애통합교육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부모님은 특수학급 개설을 요청하여 우여곡절 끝에 처음으로 일반중학교에 특수학급과 특수교사가 초빙되었다. 그로 인해 언니는 이해되지 않는 수업시간에 멍하니 앉아있는 대신 특수학급에서 맞춤형 수업을 하며 친구도 사귀었다. 이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또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언니의 표정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

밝아졌고, 행동양상 또한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

언니의 삶에서 큰 변화들은 항상 정책과 법률 개정에 따른 혜택과 관련되었다. 중학교 특수학급 개설 때도 그러하였듯,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시행으로 언니는 일자리를 찾았다. 성인이 된 장애인에게 직장은 사회적 측면에서 돈벌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언니 주변에서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이들이 장애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제도는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며, 이뿐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 인권의식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언니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비장애 직원과 언니가 함께 근무하며, 그들은 모두 더불어 사는 사회를 경험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고 있음이 분명하듯 말이다.

비장애 자매로 자라오며 어린 나이에서부터 수많은 사회적 차별을 겪어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래보다 높은 인권감수성을 갖추게 되었다. 불특정 다수가 가하는 차별을 아픔을 알기에, 다른 사회적 약자의 상황에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장애인에서 시작된 관심은 여성과 난민 이슈로 점차 확장되어, 학부에서 이에 대해 학술적으로 사유하였고 다양한 국제 NGO에서 활동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하나씩 삶의 토대가 되어 훗날 한국의 인권학 발전이라는 꿈을 간직하게 하였고, 아직 국내에 부재한 인권학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적고 인권의식이 높은 나라일수록 공공 장소에서 그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한국은 10여 년 만에, 장애인을 복지관이나 특수학교와 같은 특정 공간에 한정 지던 사회에서,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하는 사회로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어쩌면 '정상'이라는 단어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차별을 정당화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2030년의 한국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허물어져 도리어 정상의 의미를 되묻는 사회가 되길 바라본다.



[아동청소년 부문 최우수작, 이윤지]



마주 보고 이해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인권이란 무엇일까? 세상은 인권을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 평등의 기본적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인데, 과연 이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미처 보이지 못하는 곳에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가까워서 경험했지만, 가장 멀리서 본 인권침해 이야기이다.

6학년 때 일이다. 우리 반은 어울림 반으로, 소통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다. 우리 반 친구들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했을까? 알뜰하게 옆에서 챙겼을까? 아니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을까? 정답은 둘 다 아니다. 그 아이는 우리 반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아이였다. 그렇다면 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했을까? 여는 친구들과 다를 것 없이, 나도 그 아이를 투명인간 취급하였다.

어느 날의 일이었다. 조별 수행평가를 해야 했던 우리 반에는 그 아이와 서로 같은 조가 되지 않겠다고 두 팀으로 나뉘어 크게 싸우는 일이 일어났다.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 아이와 함께 수행평가를 했다 하면 완성도가 부족하여 결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그 아이의 기분은 생각하지 못한 채로, 반 친구들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나 역시 그 아이의 기본보다는 내 수행평가 점수가 더 중요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아이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 아이는 소통이 조금 불편했을 뿐 감정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반 친구들이 자신과 같은 조가 되기 싫어 싸우는 모습을 보며 과연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그 입장이라면 너무도 슬프고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한 느낌이었을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를 비롯하여 우리 반 친구들

마음 깊은 곳에는 '사회 약자 혐오'가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왜 어린아이들 마음속까지 '사회 약자 혐오'가 자리 잡게 된 것일까? 우리는 한 번이라도 '사회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던가? 그들의 입장보다는 나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사회 약자를 무시하고 혐오하게 하는 세상을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중 하나가 '입장 바꾸어 생각해보기'이다. 내가 만약 소통 장애를 가진 아이라면? 내가 만약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 인이라면? 내가 만약 저소득층이라면? 그때도 과연 그 아이를 그렇게 대했을까?

무조건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다. 한 번쯤은 자신이 왜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고 그 누군가의 입장도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자신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소중한 법이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지켜지길 원하면서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모나 가정환경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결정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경우가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혐오'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연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은 함께 사는 세상이다. 각자의 길을 살아가지만, 함께 하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세상이다. 사회적 약자를 한없이 부정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미래는 발전은커녕 쇠퇴할 것이다. 나를 넘어서 타인, 타인을 넘어 글로벌로 이어지고 있는 이 세계를, 마주 보고 이해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아동청소년 부문 우수작, 김수연]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

